

‘엘 클라시코’ 18일간 4차례 열린다

〈세기의 축구 전쟁〉

영원한 라이벌 레알-바르샤 더비전 성사

챔스 4강 1·2차전·리그·국왕 컵 맞대결

최고의 라이벌전으로 꼽히는 FC바르셀로나-레알 마드리드(이상 스페인) 간의 ‘엘 클라시코(El Clasico)’가 18일간 동안 두려 네 차례나 이뤄져 지구촌 축구팬을 설레게 하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1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화이트하트레이에서 열린 토트넘 헛스파(잉글랜드)와의 2010-2011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원정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이겼다. 1차전에서 4-0 대승을 거둔 레알 마드리드는 1, 2차전 합계 5-0으로 앞서 4강에 올랐다.

레알 마드리드와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툴 상대는 리그 맞수 바르셀로나다.

바르셀로나는 사흐트아르 도네츠크(우크라이나)에 1, 2차전 합계 6-1로 앞서 하루 먼저 4강에 올라가 있었다.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꿈의 무대’인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격돌하면서 두

팀은 오는 17일 스페인 프리미어리가 경기 부터 열여덟 차 동안 두려 네 차례나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1902년 스페인 국왕컵(코파 델 레이) 준결승전으로 시작된 양 팀간의 축구전쟁 ‘엘 클라시코’의 109년 역사 중 가장 특별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전대미문의 ‘엘 클라시코 4연전’은 17일 마드리드의 홈 구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릴 프리미어리가 32라운드 경기로 문을 연다.

현재 7경기를 남겨놓고 선두 바르셀로나가 27승3무1패(승점 84)로 레알 마드리드(24승4무3패·승점 76)에 8점이나 앞서 리그 3연패 탈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두 팀은 리그 경기 후 나흘 뒤인 오는 21일 벨렌시아 메스타야 경기장에서 국왕컵 결승전을 벌인다. 국왕컵 우승의 주인을 가리고 나면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오는 28일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다음 달 4일 바르셀로나의 누 캄프에서 UEFA 챔피언스리



그 4강 1, 2차전을 치른다.

두 팀의 격돌은 혼역 최고의 축구 선수로 꼽히는 바르셀로나의 ‘마라도나의 재림’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특급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의 맞대결로도 관심을 드는다.

올 시즌 메시는 리그 29골 등 총 48골로 바르셀로나 구단 사상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새로 썼고, 호날두도 리그에서 28골 등 총 40골을 터트리며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게다가 바르셀로나를 2008-2009 시즌 스페인 프로축구 사상 처음으로 3관왕(UEFA 챔피언스리그, 프리미어리가, 국왕컵)에 올려놓은 호셉 과르디올라 감독과 지난 시즌

▲엘 클라시코(El Clasico)= 스페인 프리미어리가의 최대 라이벌인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의 더비 경기를 이르는 말이다. 본래 의미는 고전의 승부이다. 매년 국제적으로 시청률이 가장 높은 축구 경기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 2011 엘 클라시코

날짜	게임
17일	프리미어리가
21일	국왕컵 결승
23일	챔스리그 4강 1차전
5월4일	챔스리그 4강 2차전

이탈리아 인터 밀란을 이끌고 역시 ‘트레블’(3관왕)을 달성한 조제 무리뉴 레알 마드리드 감독 간의 저력대결도 불만하게 됐다.

한편, 살케는 14일 독일 쥘젠키르헨의 아우프샬케 아레나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홈 경기에서 지난 시즌 우승팀 인터 밀란을 2-1로 제압, 4강에 합류했다. 4강 상대는 박지성이 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연합뉴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앞쪽)가 2010-2011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상대 수비수와 치열한 볼 디툼을 하고 있다. 호날두는 17일부터 시작되는 바르셀로나와의 ‘축구전쟁’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다.

/연합뉴스

K리그에선 지동원 VS 윤빛가람 대결



전남·경남 공격의 핵… 주말 창원서 순위 싸움

광주FC는 전북 원정, 박기동·김동섭 승수쌓기

될 수 있다.

지난해 신인왕을 놓고 경쟁을 벌였던 신예 공격수 지동원과 윤빛가람이 승점을 노리며 전면에 나서게 된다.

지동원은 전지훈련 도중 무릎 부상을 당하며 시즌 출발이 늦었다. 지난달 20일 안방에서 열린 서울전을 통해 시즌 첫 경기를 치른 지동원은 아직 골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경남 공격의 핵심 윤빛가람은 올 시즌 6경기에 나와 2골을 기록하고 있다. 뛰어난 경기 조율 능력까지 겸비한 윤빛가람은 전남에게는 반드시 막아야 할 상대다.

지동원과 윤빛가람의 자존심 싸움만큼이나 아우들의 대결도 눈길을 끈다.

양팀의 유소년팀 출신인 ‘광양루니’ 이종호와 경남 윤일록이 폐기의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광양제철과 출신인 이종호는 폭발적인 공

격으로 전남의 신예 선수로 주목 받고 있는 유망주. 올 시즌경기 출전한 이종호는 1골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진주고를 나온 윤일록도 지난 3일 인천과의 홈경기에서 경기 시작 1분 만에 상대 골문을 가르며 데뷔골을 장식했다.

국가대표 수문장 출신의 전남 이운재와 경남 김병지는 양팀의 골문을 지키며 승리 수상에 나서게 된다.

승리가 간절한 광주 FC는 16일 오후 3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 현대를 상대로 6리운드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안방에서 열린 상주와의 5라운드

경기에서 우위를 점하고도 골결정력 부족으로 아쉬운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상주와의 무승부를 통해 정규리그 4경기만에 승점 1점을 추가하기는 했지만 개막전 이후 승리를 기쁨을 만끽하지 못했다.



〈경남 FC 윤빛가람〉

경기장을 찾은 윤빛가람은 올 시즌 6경기에서 1골을 기록하고 있다. 뛰어난 경기 조율 능력까지 겸비한 윤빛가람은 전남에게는 반드시 막아야 할 상대다.

광주는 안방에서 열린 상주와의 5라운드 경기에서 우위를 점하고도 골결정력 부족으로 아쉬운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상주와의 무승부를 통해 정규리그 4경기만에 승점 1점을 추가하기는 했지만 개막전 이후 승리를 기쁨을 만끽하지 못했다.

박기동·김동섭 ‘태극듀오’의 득점포가 침묵을 지키면서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 행진 중이다. 또 광주는 수원·울산에서 열린 정규리그 경기와 강원·부산에서의 컵대회까지 원정 전패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는 5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된 골키퍼 박호진을 중심으로 철벽 수비진을 구축하고 빠른 공습을 통해 적지에서의 첫 승리를 노리겠다는 각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순천공고 이학성 금빛 발차기

전국농아인태권도대회 우승



는 2011년 세계농아인 태권도선수권대회에 한국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신생이 열병으로 철력을 잊은 이학성은 이수중학교 2학년 전라남도 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90cm의 훌륭한 키에서 뛰어져 나오는 뛰어난 발과 오른발 내리찍기가 주특기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경기자 ejkim@

제2 기보배는 누구?

광주양궁협회장배 18일 개막

광주시양궁협회장배 제23회 양궁종별대회가 18일 엄주체육관 양궁장에서 개막한다.

광주시양궁협회(협회장 김광아)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18~19일 이틀 동안 열리며 광주시청 선수들과 전국초등학교 양궁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여자조동부 유촌초 선수들까지 1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한편 협회장배는 지난 1986년 광주시 양구협회가 조직된 이후 매년 치러지고 있으며 대회를 통해 1996년에 라탄타올림픽 장용호, 2006년에 아시안게임 이특영, 2008년에 베이징올림픽 주최정,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기보배 등 스타선수가 발굴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금당 공인중개사

■ 감정가 이하

- 오피스 부지 임대인 지역, 동립동 삼익오피트 뒤 주거지역 1845평 투자성 좋은 매도 9억2300만원
- 종합동 도로집 어린 대지 196 건평433평 4층건물 공시지가 3억9천 원요금설정합 5억원
- 금남로 5가 대로변 대지 496 건평872 공시지가 1억2천원
- 임대사업에 적합 매도 53억원
- 학순 이운연 소재지 국도점 주거지역 596평 창고·공장적합 대출 4천5백 원요금설정 5억원
- 금남로 5가 대지 80 건평300 공시지가 1억3천 매도 10억원
- 금남로 4가 구 광주은행 4거리 대지 494 건물은 301평과 680평 2도 있음 공시지가 87억5천 매도 35억
- 북구 아파트단지 목록형, 골프인증장 등 대지 440 건평 507 공시지가 9억7천 원요금설정 5억원 전세7000 월280만원 사우나, 헬스, 에어로빅은 직영화, 교환도 가능 12억5천
- 광주연암원 일대 대지 108 건평383 김정11억3천 매도 6억7천
- 황금동 4층 상기주택 대지 68 건평 145 미도 3억3천
- 내방동 483평 원룸 및 생활주택적합 대출 794 대지 5억원
- 주유소 학군을 끝 1118평 공시지가 10억8천 매도 15억5천
- 동립동 아파트 예약지역 계획도로 코너 대지 135평 1억6천
- 풋내비화점 부근 대지 90평 4층 건물 공시지가 5억 매도 4억5천
- 대인동 대지 372평 건평 440 공시지가 25억 7천 매도 14억
- 매도·교환

 - 학순동 통연 세리 별장 250평 경관좋은 1억7500
 - 남평동 교원리 버스도로점 211평 주택과공장 1억6천8백
 - 산수동 호남면산면 2층주거지 220평 시찰별장적합 2억7천
 - 하남공단 도천동 자연녹지 506평 공장적합 3억8천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신문지사,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근린시설

- 광산구 월계동 토지 110평 건평375평 지하 1층 지상6층 감정가 13억 최저가 5억5천만
- 영광군 흥농동 토지 190평 건물850평 공정용지증정지 감정가 3억4천 최저가 1억5천만

농가시설

- 광산구 송정동 대지 164평 건평 153평 김정가 3억2천만 최저가 2억3천만
- 광산구 신창동 대지 201평 건평 80평 김정가 3억4천만 최저가 2억4천만

단독주택

- 회순군 능주면 대지 135평 건평 56평 2층주택 최저가 8천만
- 곡성군 석곡면 대지 217평 건평 61평 2층 신축 김정가 1억8천만 최저가 1억3천만

전원주택

- 북구 두암동 대세대빌리 60평형 3층 김정가 1억7천만 최저가 1억2천만

아파트·빌라

- 디자인 아파트 48평 건평 83평 3층 김정가 1억7천만 최저가 9천7백만

다가구

- 북구 우신동 대지 48평 건평 83평 3층 디자인 김정가 1억7천만 최저가 9천7백만

광주 서구 마륵동 도시철도공사 부근

T. 010-3616-8698. 062-233-2222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장 LH공사광주전남지사별 유지빌딩 501

전원주택지 급매

남구 대지동(대충부근)

일반주거지역. 마을내 나대지 886㎡(268평)
매매가 9800만원.(3.3㎡당 365,000원)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 광산구 산월동 보호병원앞 9,722㎡(2,941평) 3.3㎡당 58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 서구 세하동 일야. 면적 3,835㎡(1160평) 4m 진입로. 매매가 3.3㎡당 65만원. 자연녹지. 현재 일야.
- 서구 덕흥동 제2순환도로 부지채도로 접함. 담. 1,886㎡(570평). 3.3㎡당